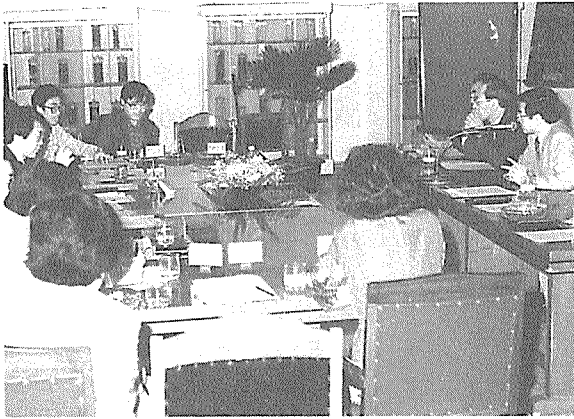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사업의 신장을 위하여



김 상 인

세계 보건기구(WHO)가 1978년에 Alma Ata에서 "서기 2000년 까지는 세계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살도록하자"고 선언한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간 질병과 건강에 대한 전세계적인 새로운 인식과 계몽 및 예방사업 등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전세계인류가 건강하게 살도록 되기에는 아직도 앞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의 퇴치와 건강증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고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국민 개보험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아직은 극복하여야 할 수없이 많은 難題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2년에 건강관리협회가 질병의 予防 및 조기발견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한지 벌써 6년이 되었다. 그간 건강관리협회는 검사장비와 시설의 확충, 인력개발과 검사기술의 향상, 검사 종목의 확대, 검사결과에 대한 정도관리, 검사대상자의 수적증가 등 여러부문에서 사업목적에 부응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제야말로 건강관리협회가 사실적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및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제2의 도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질병 퇴치와 건강증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고,
금년 7월 부터는 국민개보험이 실시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수 없이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1986년도의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의 사
인통계를 보면 후진국형이었던 감염증 및
기생충성 질환이 계속 감소되어가는 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순환기계질환
(31.7%) 위암, 간암 등 악성종양(16.4%),
만성간질환(5.2%), 당뇨병(1.36%) 등으
로 인한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
이고, 40대의 사망자 비율과 남자에서의
간경변증 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참조할 때 우리나라에서
의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및 전체국민의 건
강증진을 위한 사업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
가 하는 것은 자명하여 진다고 하겠다.

그동안의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사사업
결과를 주로 1987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
하여 보면 서울을 비롯한 13개지방에서 총
58종목의 검사항목을 총4,408, 488건(1987
년)검사 하였으며 1983년의 20종목 768,
446건에 비하면 대단한 사업의 성장을 이
룩하였다.

검사종목별로 보면 간염에 대한 HBsAg
428,000건, HBs항체 429,000건, 혈압측정
169,000건, 요당 및 요단백 검사 각각 312,
000건, 혈색소 114,000건, 적혈구용적 169,

000건, 간기능검사를 대표하는 AST 127,
000건, ALT 118,000건, 총단백 100,000건,
총 Cholesterol 59,000건, 혈당 56,000건,
BUN 76,000건, VDRL 28,000건, 심전도
170,000건, 가슴간접촬영 61,000건 등 방대
한 수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건수의 연령별분포를 보면 20세이
하 군부터 50세군까지는 각연령군마다 대
체로 20% 전후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41세~50세군이 근년에 증가경향을 보
이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하겠으나, 51~
60세군이 10.9%, 61세 이상군이 4.0%에
불과하여 인구의 노령화추세와 순환기계
질병과 암 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발
생빈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연
령층에 대한 검사대상자수의 확대가 요망
되는 점이라 하겠다.

각 검사종목 중에서 비정상적인 검사소
견을 보인 몇개 항목의 예를들어 보면 혈
압이 4.4%, 요당이 2.3%, 혈색소 2.1%, 적
혈구용적 1.8%, AST 8.1%, ALT 9.2%, 총
단백 0.2%, 총콜레스테롤 4.2% 등이며 이
들은 특히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는 항목
들이 있으나 검사성적의 정도관리, 정상참
고치 범위의 설정, 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기는 하다.

전국의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와같이 많은 검사를 분석 집계하는 의의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소중한 데이터라고 하겠다. 앞으로의 자료정리를 위해서는 예를들면 동일대상자에 대한 전체검사 항목의 종합적인 평가대상자중에서 이미 특정 질병을 진단 받은 대상에 대한 별도분석, 순수한 건강진단목적으로 검사한 대상과 특정 증상내지 호소의 유무, 집단검진과 자진내원자를 구분한 데이터 분석등 고려하여야 할 점들이 허다하리라고 생각된다.

연도별로 각 검사항목에 대한 연도별 유소견율의 추이를 살펴보건대 요당 유소견율이 1984년 이후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혈색소의 유소견율은 1987년에 감소되고, Cholesterol은 계속증가 경향을 보이고 VDRL은 특히 여자에서 계속 양성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몇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으나 기타 종목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데이터분석이 뒤따라야 하리라

고 생각된다.

검사 항목 중에서 적혈구 침강속도 (ESR), 혈색소CRP, VDRL, ToTal Protein, Cholesterol, 요침사 등은 검사건수를 늘여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되며 요검사에서 잠혈, 빌리루빈 Ketone body, Nitrite 혈소판, Amylase, 세균배양 등은 노력과 지출에 비해 건강검진목으로서의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사건수가 극히 적은 특수검사항목들은 별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팔목활만한 신장을 이룩한 건강검사업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히 일반적인 건강판단의 지표가 되는 기본검사 항목과, 간질환과 관련된 검사항목 고혈압, 심장병 등 순환기계질환 및 자궁암 등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를 위해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도관리, 검사방법의 표준화 및 검사성적의 평가방법 개발에 한층더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대국민홍보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한다.

(필자 = 서울의대 교수)

알뜰생활정보

* 고무장갑을 사용 할 때=고무장갑의 수명이 짧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사용시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오래 쓸 수 있다.

우선 불 가까이나 뜨거운 물건에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흔히 삶은 빨래를 다룰 때 고무장갑을 낀채 집거나 뒤집는데 장갑 대신 집게를 사용한다.

또 장갑이 더러워졌을 경우 씻어서 비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직사일광을 피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또 석유류나 기타 용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을 때 면장갑을 끼는 편이 좋다.